



은파(恩波)를 기다리는 선교계의 목마름

지난 2월 8일,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의 휴즈 강당에서 여느 날과 같이 오전 예배가 드려졌다. 메시지는 로마서 12장에 근거한 회개와 '행동하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남아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고, 이내 사람들은 그들과 합류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 그 이상이었다. 캠퍼스 안에 기도와 찬양이 밤낮으로 이어지며 부흥이 일어난 것이다. 한 학생은 고요하고도 생생한 부흥의 자리에 여러 날을 참석하였고, 반면 관조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번 현상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 1970년부터의 부흥과 같이 불안의 시기에 캠퍼스 예배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부흥이기 때문이다. 애즈베리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씨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캠퍼스를 넘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부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을 경험한 자들의 열매가 궁금하다.

한편,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서 주관하는 GC23(2023 Mission Commission Global Consultation)이 1월 30일~2월 3일 태국 치앙마이에에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WEA 사무차장인 Samuel Chiang 목사, WEA 선교위원회의 Jay Matenga 박사, 모든 대륙에서 온 WEA 선교위원회 지지자와 관계자가 함께하였으며 170여 명이 사전초대되어 참석하였다. 행사의 주제는 "우리의 선교 미래"였다.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차이가 만들어 내는 긴장감(tension)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기꺼이 붙잡자는 도전을 선포했다. 각기 다른 역사, 문화, 배경, 가치관, 언어가 야기한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 돌파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긴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요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예컨대 셰프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 종류의 음식을 요리하는 것에서, 셰프가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음식은 맛이 없어 보이고 생소하더라도 함께 먹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요지다. 그러므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동화 대신 상호 간의 포용을 선택하고, 불편한 문화조차도 수용하여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전은 어떻게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 또 다른 도전을 준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다음의 비유는 훨씬 긍정적이다. 모두가 다이닝룸에서 부엌으로 이동하여 함께 새로운 요리법을 나누자는 것이다. 선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사역의 리더 및 주도자를 다양화하여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이끌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단합과 협업을 통해 기쁨은 배가 된다.

이외에도 모임에서는 "이주민을 섬기는 지역교회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주민 사역에 동원하자"는 논의가 오갔으며, 난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한껏 촉진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참여가 논의되었다. 결론에 다다서는 "선교지역 성도들이 선교의 중심에 있음"이 강조되었다. 현지에서는 현

지의 선교 방식이 가장 상식적이며 이상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교지역 출신 현지 선교사들의 역할을 증대하고, 자(自)신학 및 자(自)선교학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긴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외지인의 선교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현지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재능과 자원을 갖춘 여성들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대규모의 지진 피해로 신음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는 구호물품과 응원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된다지만 보내주는 자들의 바람일 뿐이다. 그 가운데 골든타임은 훨씬 지났지만 구조대원들의 구슬땀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 기적적인 구조 소식은 전 세계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본지는 하루속히 지구촌에 회복과 희심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최근 디아스포라 사역 이슈를 3월호에 담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KEHC) 국내 이주민 선교

기성 국내 이주민 선교회 서기
예승네팔선교센터 대표



글 박성규 선교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주민 선교는 교단 내 선교의 상징인 수정교회가 효시라 볼 수 있다. 1992년 당회를 통해 국내 필리핀 선교를 결정하고 1993년 5월 4일 필리핀 근로자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주민 사역에 돌입하게 되었다. 수정교회가 교회 차원의 이주민 선교의 시작이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한 민족을 품는 이주민 선교는 미얀마 선교의 첫 삽을 뜬 이명재 목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93년 부천역에서 '파우'라는 미얀마 목사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였고, 많은 도전과 난관을 이기고 현재 풍성한 역파송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또한 남아공에서 선교사역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2001년부터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전철한 선교사는 인천 남동공단에 한국외국인선교회(FAN)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40여 곳의 FAN 지부가 국내에 세워졌다. 그 후 교회 내에서도 이주민교회 또는 선교센터, 쉼터를 운영하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속속 생기기 시작하였다.

2018년도에 교단 해외선교 위원회의 인정 하에 '국내 이주민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이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출신이자 광성교회 담임하셨던 김재운 목사,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영광교회 시무하셨던 김창배 목사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회 대표는 전철한 목사, 총무에 이명재 목사, 서기에 박성규 목사, 회계에 장영석 목사가 섬기고 있다. 현재 개교회나 이주민 선교 교회 혹은 이주민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역이 교단 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교단 내 전체 이주민 사역처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4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역 유형은 교회 안에서 이주민 선교부를 설치해 한국 성도들이 돕는 형태와 한국인 성도와 이주민을 함께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 운영해 나가는 형태, 그리고 애초에 이주민만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이주민 교회나 센터가 있다.

국내 이주민 선교회에서 실시한 주요 행사는 △이주민 선교 콘퍼런스 △이주민 사역자 위로회 △이주민 워크숍 △이주민 사역지 방문기도회 △이주민 선교학교 △이주민 선교 매뉴얼 작성 △이주민 사역자 수련회 △찾아가는이주민 선교학교(비대면)가 있다. 또한 각 사역지 소개와 활동을 책으로 엮어 <이주민 선교회 사역 이야기>를 2019년도에 출판하였으며, 총 13곳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역지와 필자는 △김해제일교회(안용식 목사) △다문화카페교회(최인기 선교사) △둔포성결교회(이두언 목사) △바울교회(신용수 목사) △수요유학생선교연합기도회(이강섭 목사) △수정교회(이성준 목사) △시냇가나무교회(손덕순 선교사) △실로암교회(이명재 목사) △양촌비전교회(장영석 목사) △예승네팔선교센터(박성규 선교사) △청주새날교회(김대환 목사) △평화나무교회(구윤희 목사) △한국외국인선교회(FAN, 전철한 선교사)이다.

책자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 서광교회에서 유학생을 섬기는 박용부 선교사, 김해제일교회에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이주민을 섬기는 한미 권사, 화성에서 베트남 이주민을 섬기는 박명혜 목사, 안산에서 다문화 선교를 하는 최용철 목사, 인천에서 고려인을 섬기는 최종철 목사, 서울 홍대 근처에서 유학생 선교를 하는 홍정표 선교사, 평택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섬기는 김대환 목사, 시흥에서 네팔 이주민을 섬기는 문민규 선교사, 광주광역시에서 고려인을 섬기는 강요한 선교사, 안성에서 중국인을 섬기는 허규문 선교사, 아산에서 러시아권 이주민을 섬기는 김승리 선교사, 인천에서 태국 이주민을 한글 교육으로 섬기는 박은경 선교사, 서울랜드마커미니스트리에서 유학생을 섬기는 오영섭 목사, 대구 반석교회에서 필리핀 이주민을 섬기는 이병우 목사, 서울에서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을 하는 김기범 목사, 서울 신촌 우리교회에서 유학생 기도운동을 하는 김연태 목사, 당진의 세류교회에서 네팔 이주민 선교를 돕는 이연국 목사, 네팔 예배공동체를 섬기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그리고 최근 남아공에서 사역 전환하여 국내 무슬림을 섬기려 준비 중인 전*희 선교사 등이 있다.

차후에 국내 이주민 사역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교단 내 개교회에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거점 도시를 정해 선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회나 기관별 행사에 이주민 사역을 소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후원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이주민 사역지를 돕고 사역자를 위한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그러나 아직 대

다수의 교회가 이주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교회의 형편에 맞춰 어떻게 이주민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하우가 고안되어야 한다.

작금 출생률 저하, 고령 인구 증가, 노동 인구 감소, 3D업종 기피 등으로 이주민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교단 내 이주민 선교도 활발하게 진행되길 소망한다. 이주민 선교는 복음 전파와 나그네를 섬기는 복의 통로로써 한국교회가 살아날 기회이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4월호는 장로회(통합)이 실린다.

동남아시아의 선교적 특성과 잠재력	4면
NCOWE 2023	5면
글로벌 제자 운동 '갈릴리 무브먼트'	6·7면
캄보디아 사역리포트	8·9면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10·11면
성경 속 이주민 : 건국의 아버지가 된 야곱	13면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국내 거주 아랍인을 위한 집, 베이튼누르

전 GMS/GBT 파송선교사
베이튼누르 대표
합신에서 아랍어와
아랍문화 강의



글

안드레 목사

국내에 26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살고 있다는 통계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한국에 거주하고자 이주 온 아랍권 이주민도 있습니다. 아랍은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는 22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인구는 4억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아랍인들은 14,000명이 채 되지 않아 전체 이주민 중에서 겨우 0.5% 정도를 차지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인 데다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한국교회에서 소외와 배제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아랍인입니다. '베이튼 누르(Beyt Ennour)'는 아랍어로 '빛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빛을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아랍인에게 밝히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마음에 아랍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편, 인천 연수구와 안산 단원구 그리고 그 두 동네의 중간지점인 시흥 정왕동 이 세 구역에 국내 전체 아랍인의 13% 이상인 1,800여 명의 아



랍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움마(Umma)보다도 더 뛰어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중간지점인 시흥 배곧신도시에 2~3인 혹은 3~4인으로 이루어진 아랍인 소수사랑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문화공간과 여가시설도 많고 바닷가와 가까운 공원이 있는 등 밝고 생기가 넘치는 환경이기에 일주일 내내 3D업종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랍 형제자매들이 찾아올 때 힐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베이튼누르의 사역의 내용으로는 첫째, 다양한 형태의 도움 베풀기를 원합니다. 법률적(행정적), 의료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랍인에게 실시했던 15년이 넘는 한국어교육 경험을 살려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한국어 교육과

정을 무료로 베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아랍 형제자매들을 알고 계신다면, 또한 앞으로 만나게 되신다면 베이튼누르를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시고 그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섬기는 디아스포라 민족은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이튼누르를 계약한 날에 작사·작곡한 베이튼누르 주제가와 표어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빛의 집, 밝은 빛 비추어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런즉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리라.
어둠에 속한 자들 빛으로 나아오리라.
빛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생.사.진. *영광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
빛의 집아 비추어라!)

— DIASPORA CENTER —

Beyt Ennour
베이튼 누르

Welcome to
Beyt Ennour!

디아스포라 컨설팅
& 한국어 교육 etc.

مرحبا
كيف يمكنني مساعدتك؟

아브뉴프랑센트럴
블루(Blue)동 438호

☎ 010-4479-6431
(يرجى الاتصال قبل الزيارة)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글로벌선교센터(GMC) 대표
글로벌대학교(Global
University) 한국 대표



글

이주영 목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신 일 중 하나가 질병 치유였다. 당시에는 병자가 허다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병원에서 대기하다 사망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환자가 많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병에서 놓여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는 사람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아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다.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을 보는 것이

었다. 시신경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살아나 세상을 볼 수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직전 그 빛이 자신임을 알려주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지만, 그 빛은 결국 소경의 눈을 회복시키는 육체 치료의 능력으로 이어졌다. 병 고침 받기를 애타게 염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이것이다. 병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지만, 치료의 근원은 주님의 빛의 파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말이다.

이 치료 과정에서 맹인은 주님과 함께 움직였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

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실 때 그는 협조했고(요 9:6),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도 순종했다(요 9:7).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7절)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낫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며 그래서 최적의 과정으로 이끄신다. 그 결과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 그는 이중 혜택을 본 것이다.

나는 20대에 병명이 없는 심신허약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한약도 복용하고, 건강식품도 먹고, 산기도도 올라가고, 기도원에도 다니고, 신유집회도 찾아다녔다. 질병은 예상보다 오래 갔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은 내 영혼을 함께 만져주셨다. 육체의 질병을 고

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알고 그 빛을 받아 일하는 목사로 세우셨다.

질병을 통해 이끄심의 길을 발견하자. 이끄시는 최적의 길로 나아가자. 진흙을 바르시면 발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면 씻자. 약을 줄이라 하시면 줄이고, 운동을 더 하라 하시면 더 하자.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으려면 그렇게 먹자. 그리고 병 고침을 통해 이런 간증을 하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요 9:11)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사라졌네요!" 이런 치유의 간증이 올해 2023년에 완벽히 있기를 축원한다.

동남아시아의 선교적 특성과 잠재력



▲ WEA 주관 GC23(2023 Mission Commission Global Consultation)가 1월 30일~2월 3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최근까지 6억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전 세계 6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서로 단절되었으며 교회와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는 위협받았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과 창조주의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마태복음 16장 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위협이 박해·전쟁·자연재해·인본주의·세속주의 심지어 권위주의와 식민지화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선교위원회는 그리스도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인 태국에서 최근 모임을 가졌다. 태국은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 등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에 속하며, 이곳은 인도차이나반도라고도 불린다. 태국은 주로 작은 부족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지배적인 원주민들은 여전히 복음의 접근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마하야나 불교를 고수하는 베트남을 제외하고서 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테라와다

불교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주요 종교이자 문화이며, 소수의 무슬림과 힌두교 인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 속한 나라들은 인도와 중국의 사상, 종교, 문명 등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문화는 중국의 영향이 적고 인도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인도의 영향은 미미하다.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반도는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민족의 다양성은 특히 방대하다. 태국은 70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라오스는 49 부족, 미얀마는 135 부족, 캄보디아는 24 부족 그리고 베트남은 54 부족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도 더 전에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고, 그 이후로 민족 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구축하고 강화해오면서 수 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인들의 가치관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고통을 겪을 때 대응하고 버티기 위한 일관된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통치자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차례로 불교의 메시지를 경

험하기 시작했다. 비난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 거부가 아니라 따뜻한 환영, 분열이 아닌 조화, 개별적인 실현을 위한 집단적인 영역파괴가 아닌 보존, 독립적이지 않은 상호 의존, 고통을 통한 희망의 실현, 보호, 제공 등을 기반으로 불교의 메시지를 적용하였다.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문화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묘사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

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야 같은 개념으로 불교를 환영했다.

개신교 복음은 19세기 초 인도차이나반도에 도달했다. 미얀마는 1807년(불교가 미얀마에 전파된 지 1300년 후), 태국은 1828년(불교가 태국에 전파된 지 2000년 후), 라오스는 1902년(불교가 라오스에 전파된 지 1300년 후), 베트남은 1911년(불교가 베트남에 전파된 지 1300년 후), 캄보디아는 1922년(불교가 캄보디아에 전파된 지 1500년 후)이었다. 기독교 선교는 초기에 유럽 제국주의와 식민지 열강의 위임과 지원 아래 동남아시아에 진입했다. 식민지 열강과 서구 식민지 개척자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총 네 가지 필수 영역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치적·경제적 정복은 유럽 정부의 관리·군인·상인들의 권한 하에, 문화적·종교적 정복은 유럽 기독교 선교사들의 위임 하에 이루어졌다. 선교사, 유럽 정부 관리, 군인,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본토인들에게 협력적인 식민지 개척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선교는 원주민들의 삶에 위협과 파괴를 가하는 가공할 만한 힘과 방식으로 인도차이나반도에 침입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에게 기독교

선교는 종교에 대한 적대감, 경멸, 무관심, 관용이 뒤섞인 채 받아들여졌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부분을 불신한다. 서구 열강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우월성에 대한 개념화와 서구 지배적인 기독교 전통은 동남아시아인들이 토착적인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종교들은 대부분 수용되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서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배척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 사명과 비전을 재고하고 메시아인 예수의 방식에 맞춰 우리의 태도, 사고방식, 목표, 전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동남아시아인의 풍부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손 내미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민족과 문화에 대해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또는 "당신의 물을 주시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 생명의 물이셨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물을 먼저 음미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그녀의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우리는 아시아인의 정체성과 주도권이 미래 기독교의 주요 부분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계 기독교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독립교회 성도들은 1970~2020년 사이에 1200만 명에서 1억 300만 명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환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했다. 여전히 서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기독교는 가까운 미래에 태국인·라오스인·캄보디아인·미얀마인·베트남인에게 더 이상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민족적이고 토착적인 동남아시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영적·종교적으로 충성하고, 문화적·인종적으로 그들의 지

역에 충실함으로써 아시아인의 정체성이 반영된 진정한 아시아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선교 연구자와 실천가들은 기독교가 토착화된 형태를 통해 주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점을 뒷받침해주는 예로,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지도력과 자금을 통해 캄보디아에 전파된 기독교 신앙 100주년을 축하했으며 밤마다 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4월에는 태국 기독교 지도자와 사역자

최소 5000명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9월에는 '복음과 교회성장'에 관한 회의에 모일 예정이다. 이 두 모임 모두 기독교의 미래를 그들의 방식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국가·지역·토착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다. 또한 올해 7월 태국 파타야에서 최소 1500명의 아시아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지금은 동남아시아권을 비롯한 우리 곁에 온 모든 이주민에게 환대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정리 문창선 발행인

NCOWE 2023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 (2)



미션파트너스
NCOWE 2023 프로그램위원장

글 한철호 목사

NCOWE(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 전략회의,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의 배경은 GCOWE(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이다. GCOWE는 1974년 로잔대회에서 제시된 세계 복음화와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랄프 윈터가 말한 미전도종족 선교의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1989년 4월 싱가포르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는 1989년 8월 2차 로잔대회 이후 확산한 AD2000 & Beyond 운동(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the year 2000)의 실천을 위해 1995년 서울과 1997년 프리토리아 등에서 모인 전 세계적인 전략회의였다.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GCOWE의 목적을 이루

기 위한 국가별 전략회의 개최 요청에 반응하여, 1991년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까지 7차에 걸친 NCOWE를 통해 GCOWE가 제시했던 '전방 개척 선교의 완성'이라는 선교 과제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초기에는 전방 개척 선교에 집중했고, 후에는 그 논의의 범위를 넓혀 한국선교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여 한국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NCOWE 2023에서는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1. 선교와 거룩(Mission and Holiness):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 그 이상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교는 거룩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된 우리의 선교 또한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2. 한국선교와 세계기독교(Korean mission and World Christianity): 우리 가운데 이미 와있는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선교(사)에 대한 반추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교회와 협력을 이뤄 갈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 앞에 와있는 다수세계(Majority World)가 이끌어가는 세계기독교는 이제까지 선교를 이끌어 온 서구선교로부터 이어갈 것과 단절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제 선교는 자립, 자치, 자전을 넘어서 내부인들이 중심이 되어(Centering local) 자신화화를 이루고 자신의 문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과 이를 외부자가 돕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경우 이제까지 해 왔던 한국선교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3. 남겨진 과제, 발견할 과제(Frontiers in Mission): 한국선교에 주어졌던 세계 복음화의 과업 중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이유

는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수정하고, 세계기독교 시대에 새로이 발견해야 할 선교의 과업과 영역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문화 집단 안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스스로 배가하는 제자 그룹이 형성되고, 복음이 그들 문화에서 토착화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의 배가가 일어나야 하는 '남겨진 과제'이다. 더 나아가서 문화로 단절된 계층(세대)과 영역(환경), 사상 안에도 복음이 벽을 넘어 전달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발견해야 할 과제'이다.

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Best Practice for God's Glory):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인 성육신적 태도로 섬길 수 있도록 변화된 선교 생태계를 이해하고 한국교회·선교단체·선교사·성도·다음세대가 각각 어떤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갈 것인지를 논의한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MMTS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Lausanne Diaspora Global Classroom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2월 27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20~9:30)

장 소 : ZOOM 온라인
훈련비 : 15만원 (위디선교회 하나은행 464-910007-22804)
문의 : 최현주선교사 010.4688.3816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등록링크 : <https://forms.gle/Q91oqKeosC1HrGbY8>
주관 : 위디국제선교회

협력기관 : GDN NEXTMOV CDM 주안대학교
디아스포라신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ima

이주민선교학교 클래식 24기 모집



상황과 이해	1강	2/27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2강	3/6	한국 이주민 선교의 역사와 현황
	3강	3/13	성경 속의 이주민
	4강	3/20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 그 활용방안
준비와 적용	5강	3/27	비교종교와 타문화
	6강	4/3	국내 무슬림 선교
	7강	4/10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8강	4/17	이주민 선교사역의 5단계
진행과 성취	9강	4/24	유학생 선교
	10강	5/1	이주근로자 선교
	11강	5/8	이주민 가정 및 2세 선교
	12강	5/15	탈북민선교
	13강	5/22	이주민에게 듣는다
	14강	5/29	연구발표 및 수료식

"예수 닮은 제자 세우는 '디사이플메이커' 무브먼트 시작"

글로벌 선교운동 '갈릴리 무브먼트', 세계 최초로 한국서 론칭



▲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이 갈릴리무브먼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제자 삼는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선교운동인 '갈릴리 무브먼트'(GM, Galilean Movement)가 21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갈릴리무브먼트는 전 세계 교회와 신학 교육 기관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프로그램 및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자 삼는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양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을 통해 이를 촉진하기 위해 론칭됐다.

특히 이 운동은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회심 및 부흥운동, 새로운 형태의 교회인 이머징 처치(Emerging Church)가 일어나는 곳에서 예수를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공식 및 비공식 훈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세계복음연맹(WEA)과 로잔 네트워크에 속한 최대 100개 국가에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마다 10개 핵심도시를 선정하고, 1,000개 도시별로 100개의 제자 양육 교회를 발굴하고 동원하여 2027년까지 총 10만 교회와 함께 5만 신학 교육 기관이 '제자

세우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해 매년 100만 명의 제자 삼는 일꾼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날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갈릴리무브먼트 설명회는 갈릴리무브먼트 지역 카탈리스트 현한나 교수(장신대)의 사회로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의 환영사, AWMJ 사무총장 구성모 교수(성결대)의 기도 후 갈릴리무브먼트 글로벌 카탈리스트 문창선 목사(위디국제선교회 대표)의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강대홍 목사는 "새로운 선교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을 빨리 많이 세워야 주님께서 명하신 대위임령을 이룰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고 정착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문창선 목사는 이날 "제자 양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식상한 듯한 느낌이 있다"며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하루 3만 명의 무슬림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다는 통계를 WEA와 로잔, 그 밖의 전문기관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또 시간을

정해 예배당에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차원의 교회를 넘어서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디아스포라교회 등 이머징 처치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갈릴리무브먼트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목사는 "이런 현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누가 화심한 무슬림들을 주님께 더 이끌 것이며, 누가 더 많이 세워지는 이머징 처치들을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일 것"이라며 "소위 제자 양육에 관련된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두 양대 산맥과 같은 WEA와 로잔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관심을 품고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적(막 6:35~44)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한 제자들의 작은 관심과 공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관심이 갈릴리무브먼트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수많은 일꾼을 전 세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갈릴리무브먼트 소개 영상 시청에 이어 갈릴리무브먼트 의장 맨프레드 콜 박사(Manfred W. Kohl)는 설립 목적과 배경을 소개했다. 원래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던 콜 박사는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에서 일본까지 왔으나 한국에 오는 비행기 좌석이 없어 영상을 보내왔다. 콜 박사는 "많은 선교적 열매와 활동이 외부적으로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정한 주님을

닮은 한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각 지역 교회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있다"라며 "함께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무브먼트를 WEA와 로잔의 위임을 받아 갈릴리무브먼트가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WEA 직전 사무총장이자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갈릴리무브먼트 대표를 맡은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Efraim M. Tendero)은 조직 및 운영 계획 소개에 앞서 "마태복음 9장 37~38절, 28장 18~20절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는 제자화되지 않은 크리스천"이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 만드는 일, 곧 디사이플 메이킹(disciple-making)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텐데로 감독은 이어 "이 운동은 세계적인 복음의 추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협력하여 형식적 신학 교육뿐 아니라 제자 양육에 온전히 헌신할 사역자들(disciplemaker)을 전 세계적으로 길러내는 운동"이라며 "이 운동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텐데로 감독은 이와 함께 '지역 교회'와 '교육 기관'이라는 두 개의 메인 트랙을 통해 매년 100만 명의 제자 삼는 일꾼을 길러내는 목표를 소개했다. 곧 100개국에 국가별로 10개 도시를 세우고(1,000개 도시), 도시별로 50개의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5만 교회) 교회별로 10명의 제자 삼는 리더를 양성하고(50만 명), 또 도시별로 10개 교육 기관을 세워(1만 교육 기관) 기관별로 50명의 제자 삼는 리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운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찬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운탁 박광운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터를 양성하면(50만 명) 총 100만 명의 제자 삼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3~2024년에 지역의 촉매 역할을 할 9명의 리더를 모집 및 준비해 9개 지역 협의(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라틴아메리카, 메나,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카리브해 지역)에 비전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며, 2025~2026년에는 글로벌한 제자 양성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100개 이상 국가-지역 모임을 진행하고, 2027년까지 10만 교회와 5만 신학 기관이 제자 삼는 사람 양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한인선교기구연대(KAMSA) 대표 한정국 선교사는 축사를 통해 "대학생 때 캠퍼스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남산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간증한 뒤 사람들에게 사영리를 읽어주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감사했다"며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훈련하는 것이므로, 기술과 무브먼트가 아니라 순수성을 가지고 각 나라의 네이티브 랭귀지, 네이티브 컬처적인 것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문창선 목사는 "제자 양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하는 질문"이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할렐루야교회, 사랑의교회 등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구슬이



▲ 설명회에 영상을 보내온 맨프레드 콜 박사

100개 국가별 10개 핵심도시 선정해 1,000개 도시서 각각 50개 제자양육 교회와 10개 훈련 기관 세우고, 전 세계 5만 교회서 10명씩, 1만 훈련 기관서 50명씩 제자 삼는 추수하는 일꾼 매년 100만 명 양성 계획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많은 제자 양육에 관련된 것을 하나로 묶고 다른 저개발 지역, 글로벌 사우스 등에 제자 양육이 많이 공급되길 원한다. 1년에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이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텐데로 감독은 이 운동의 차별성에 대해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신학 과정에서 제자 양육,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국제적 실행 계획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유하고, 제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텐데로 감독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제자(disciple)를 넘어 디사이플메이커가 되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전 세계 80억 인구 중 24억 만이 기독교인이고 56억 인구가 아직 예수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제자 양육이 상당히 부족함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좀 더 촉진시켜 지역 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권역에 따라 제자의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묻는 말에 텐데로 감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연민, 열정이라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사람들

제자로 정의한다"라며 "이 정의 속에 반드시 생각, 말, 행동, 삶의 적용 등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에 기준점을 두고 예수 닮은 제자들을 곳곳에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까지 5만 교회와 1만 신학교 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접촉하여 연합전선을 짜고, 그분들에 의해 배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면, 2026년에는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문창선 목사는 "정규 학위를 주는 교육 기관과 비정규 교육 기관을 다 조사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는 정규 신학교와 기독교 배경의 학교가 75개 정도이고, 이외 모든 선교단체의 선교 교육과 교회의 단타적 프로그램 등을 비정규 교육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오래전부터 전도부인 등 평신도 제자들의 활약이 있었고, 교회마다 제자 양육과 교육이 활발했으며, 169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등 선교의 에너지와 시너지가 많아 모델이 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운동을 론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정체 및 쇠퇴에 대한 진단과 평가, 현 신학교의 영적 강화와 생존 방안 제시를 통해 외형적 무브먼트만이 아니라 내실적 무브먼트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 텐데로 감독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에는 성찰도 있다. 돌아보면서 성찰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이 가진 잠재력 속에 이미 검증된 문

화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것이 복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화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갈릴리무브먼트는 WEA의 국제적 연합과 로잔 운동의 지역 네트워크가 주요 플랫폼과 관계적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교회, 교단, 신학 교육 기관, 교회의 비공식 교육 기관, 그 외 GACX, PWF, Empower 21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협력한다.

갈릴리무브먼트는 첫째 제자양육을 위한 기존 요구를 파악하고, 교회와 사역의 효율적 협업을 도우며, 공식 및 비공식 제자 양육 훈련 기관을 배치하게 된다. 둘째, 전 세계 최소 10만 개 교회 동원을 위한 기획과 실행을 위해 대륙, 국가, 지역 차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기독교 교육 기관, 선교단체, 교단, 지역 교회 및 교인들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성경 번역 작업에서 많은 조직이 협업할 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모델로 삼았다.

또한 갈릴리무브먼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2000주년을 맞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종적 부르심'의 각오로 진행하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을 따라 진행한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한 '최종 호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서 주님의 제자 양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 위해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1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인으로 등록했고 IRS 인준의 비영리법인이다.(<https://galileanmovement.org>)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세계를 향해 날으는 학위 취득……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it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캄보디아! 4년 만의 특별한 방문



GMF - SNS 본부장
KWMA 경기지회 사무총장

글

김강석 선교사

필자는 전 캄보디아 선교사다. 스스로 생각하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은 'ing'이지만, 캄보디아 사역지를 떠난 지 6년이 되었으니 '전'을 붙이지 않을 수 없겠다. 이제는 GMF(한국해외선교회)의 국내 이주민 선교기관인 SNS(Serving Neighbors and Strangers)에서 사역을 이어가면서, 캄보디아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캄보디아 사역을 이양하고 국내 사역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매년 1~2회 캄보디아를 방문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3년 동안은 전혀 갈 수 없었다. 그리움이 한층 고조되던 시점에, 국내 이주민선교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는 평택 꽃동산캄보디아교회(박요한 목사)에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 역시 따라나서게 되었다.

오랜만에 찾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 보였으나, 기온은 캄보디아답지 않게 덥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 4년 만에 방문한 가족을 공항이 먼저 반겨주는 듯하여 기분이 좋았다. 도착하여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스마트폰 가게였다. 캄보디아에 머무는 2주 동안 통신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지 통신회사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가게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유심(USIM)을 5달러에 구입하

여 그 자리에서 바로 개통하고, 선불 요금으로 2달러를 충전하였다. 선불 2달러 충전으로 2주일간 데이터 사용이 무제한이니, 놀라울 만치 저렴한 데이터 사용료다. 캄보디아도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유튜브 콘텐츠 등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역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이 특별했던 이유는 4년 만의 방문이어서가 아니라, 선교팀의 방문 목적 자체가 특별해서다. 평택 꽃동산캄보디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와 가족들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한 현지 전도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온 것이었다.

국내 이주민선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단기선교가 특별했던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서술하자면, 첫째로 국내 이주민선교가 전통적인 미전도종족 선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팀이 방문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가정은 교회가 없는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선교팀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가는 곳마다 100명, 200명의 마을 사람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채웠고 들려주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과 차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마을의 청년 한 사람, 곧 한국에 근로자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마을이 복음을 듣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역파송된 쌀림 전도사님이 개척한 뚜얼프까교회를 방문하였다.

선교팀이 방문하여 단회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필자가 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놀라운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선교팀이 한국에서 출발하던 날 새벽, 평택의 외국인근로자 숙소에서 한 캄보디아 미등록외국인 자매가 양수가 터져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감사하게도 그 자매는 건강하게 출산을 마쳤다. 미등록외국인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겪기까지 모든 어려운 뒷바라지를 부모처럼 대신 해준 분이 바로 선교팀을 이끄는 꽃동산캄보디아교회 박요한 목사님이셨다. 선교팀이 그 자매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서, 성령님은 아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한국에서 갓 태어난 손자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선교팀이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가정을 만나러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은 캄보디아 영혼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준비시켜 주셨다.

캄보디아 방문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이주민선교의 열매로써 본국으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의 모범적인 정착과 사역을 보는 일에 있었다.

우리는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역파송된 쌀림 전도사님이 개척한 뚜얼프까교회를 방문하였다. 쌀림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신학 공부를 병행하여 과정을 마쳤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서는 다시 현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고향에 캄보디아 전통 가옥 형태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한 것이다. 우리는 뚜얼프까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의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선교를 통하여 한 명의 귀한 일꾼이 세워진 현장을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당시 교제하던 다수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쌀림 전도사님과 함께 매주 토요일 목회자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이 목회자기도회에 참여하여 오랜 현지 동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필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다. (9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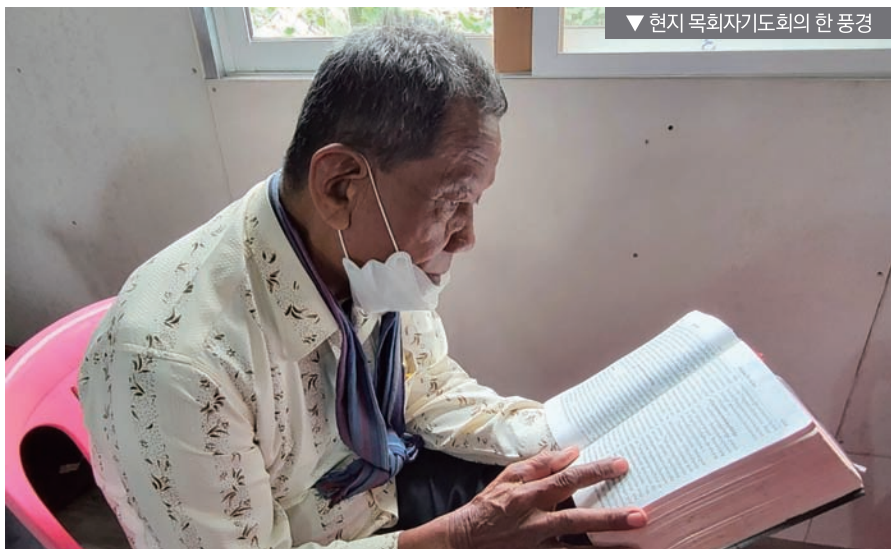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마지막으로, 선교팀의 모든 일정에 함께 동행한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젊은 부부의 동역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행(가명)과 다니(가명)는 경기도의 어느 외국인 교회의 집사로 섬기면서 온라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부부다. 선교팀은 새로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행에게 복음 메시지를 통역하는 중요한 일을 맡겼다. 행은 복음 메시지를 통역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민족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해진다고 팀원들과 나누었다. 아

내인 다니 자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행이 직접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주님께서는 일정 내내 얼굴빛이 어두웠던 다니 자매를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날 밤 깊이 만나주셨다. 다음 날 아침, 다니 자매는 전날 밤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참여한 13명의 선교팀 모두가 큰 은혜를 받은 두 주간의 일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캄보디아 부부 행과 다니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렸다.



▼ 현지 목회자기도회의 한 풍경

그리웠던 얼굴들을 캄보디아에서 다시 만나다

SIM 선교회 소속
전 나이지리아 신학교 교수
인천울프렌즈교회 담임



최규정 선교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캄보디아 성도들의 얼굴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 인천울프렌즈교회가 설립되고 1년 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이 비자가 만료되어 2020년 상반기에 모두 귀국한 뒤, 원래는 1년에 한 번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귀환자를 초청하여 선교대회를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가는 길이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12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나와 아내 이하숙 선교사는 1월 2일에 비행기에 올라 캄보디아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 우리는 12일 동안 여섯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심방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들과 연결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캄봉참 지역에 사는 펠리움 자매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펠리움의 집은 외곽지역의 비포장도로에 위치해서 주변에 교회가 없고 교회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다. 한국처럼 교통이 발달한 곳이라면 1시간 거리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먼지가 나는 비포장도로를 오토바이로 달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또는 줌(Zoom) 등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송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홍틴은 어린 적 캄포트 지역에서 어부로 자라 지금은 씨엠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이다. 홍틴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인천울프렌즈교회에 왔고, 그

후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팀 리더로 섬겼다. 그는 캄보디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예배에서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간증했다. 홍틴은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지만, 인천울프렌즈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매주 들어와 참여했다. 씨엠립에서 다시 만났을 때 홍틴은 건강한 모습이었고,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 주변에 좋은 모델이 되었다. 또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씨엠립 장로회신학교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말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었다.

모럴은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 통역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하던 형제였다. 그는 매주 토요일에 줌으로 선교사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이번에 모럴의 집을 심방하면서,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모럴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 감사드렸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과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일 년에 한 번 캄보디아로 돌아간 그들의 가족을 만나 선교대회를 계속해서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인천울프렌즈교회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lightlaw.com
www.dl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3)

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 박사
HOPE 선교사



윤사랑 박사

윤사랑 박사는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과 현장 자료 수집 그리고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과정 프로그램인 NVivo 12를 활용하였다.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비밀보장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소수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결과와의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먼저, 연구자는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 과정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승인번호: KU IRB 2020-0041) 또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외국인 사역자의 한국교회 내 사역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천후 사역

한국교회 내 사역 경험으로 무엇이든 다 해내야 하는 전천후 사역은 목양의 고충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이주민 성도를 위해 무엇이든 다 도와주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보다 당연한 일로 치부 당할 때가 부지

기수라고 한다.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시간과 관계없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사역 진행 흐름에 맞추어 이주민 사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언급한다. 이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목회자의 사역적 역할과 이주민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사역을 경험한다.

스텝과의 관계

스텝들이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 계획서나 설교 내용을 감시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사역자의 권위를 넘어선다고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불분명한 사역적 역할과 제한에서 오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일과 성취 그리고 성장 중심의 목회사역에 대해 언급했다. 주일 예배 성도 숫자는 사역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와 평가로 사역자의 책임과 의무의 잣대라고 한다. 물론 스텝들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성과에 치중하면서도 외국인 사역에 준비가 부족한 스텝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역의 자율성과 지원 부족

참여자들은 한국교회의 사역 규정을 따라 사역하는데, 일방적인 규정을 사역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외국인 사역자들을 꺾어맞추다 보니 각

나라의 민족성을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자기 역할의 한계와 사역의 자율성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스트레스

한국교회 내 사역의 경험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낳는다. 한국어 호칭의 형태적 특성과 동시에 교회 내 사용되는 직분의 호칭을 고려하여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 수직적인 대인관계와 교회 내 서열에 따른 환경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인과 관계 맺는 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의견 전달에 있어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통에 한계를 직면한다.

외로움과 상처

참여자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 R은 냉정한 교회의 처우나 버림받는 경험으로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 F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자살충동까지 경험했다.

재정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학업과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에 갈등을 느낀다. 참여자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회의 사례비 때문에 항상 사역 외의 일거리를 찾는 것은 기본 생활을 위한 당연한 일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돈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한국교회의 정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국 사역자와의 관계

한국인 사역자가 사역에 바쁜 이유도 있지만 한국인은 굳이 자기 일이 아니면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은 다문화 사역을 담당하는 경우 각 국가의 사역자들과 관계를 맺고, 사역에 대한 문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역자와는 인사 정도 할 뿐 누가 사역자인지 모를 정도로 친분이 없다고 한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문화를 조직 구성원의 행동과 패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인 사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언급한다. 선임과 후임의 관계 속에서 외국인 사역자를 감시와 지도가 필요한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한국인 목회자들의 태도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큰 문화적 장애로 보고 있다.

딜레마

참여자들은 한국교회 조직에 높은 벽을 느끼며 늘 경계와 긴장 속에 있으나,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장기간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에서 이주민들의 반복되는 이동, 즉 새로운 만남과 떠남을 경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생활과 사역의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또한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본모습에서 깊은 괴리감과 회의를 경험한다. 게다가 한국 문화와 그 영향권 안에서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지하고, 혹시 자신이 경험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면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나 사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11면에 이어서)

To the Ends of the Earth
: Beyond Phnom World Missions' 300 Nations Journey

기념 대회 일정 (3월10일~12일)

10일

저녁 / 강의 1 역사 문화 정치

11일

오전 / 강의 1 종교 기독교 신교
강의 2 경제 사회 교육

오후 / 교계 지도자 세미나
저녁 / 목회자 세미나

12일

오전 / 200번째 사역 국가 기념 예배
오후 / (사)세계총회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팔레스타인 기도회
저녁 / 한인 선교사 세미나

“성경의 땅” 탐방 일정 (3월13일~17일)

Mon.

예루살렘, 감람산, 승천동, 주기도문교회, 전망대, 눈물교회, 갓세마네교회, 시온산, 동쪽의 벽, 베데스다못, 채찍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교회, 다윗요, 마가의 다락방

Tue.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 쿨란공동체터, 사해사본발견지, 예리코

Wed.

사우렐모, 벨렐, 아람의 우물, 세겔 성터, 사마리아성, 그리심산

Thur.

요단계곡, 벳산, 헬몬산아래 탕탄,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 팔레스교회, 오병이어교회, 가버나움, 베드로수위관교회, 갈릴리호텔 숙박

Fri.

가나안 출신잔지, 나사렛, 모깃도, 감람산 엘리야교회, 음바 항구, 지중해 가이사라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번째 사역국가 기념대회

2023.03.10~17

문화충격

참여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나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즉 지나친 인사는 진심 없는 과대 행동이며 아부와 같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실 자체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또는 '예의 바른 것'으로 여긴다고 이해한다. 다양한 이주민들을 한국 스타일로 묶는 예배의 틀은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주는 가장 큰 예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각 나라의 예배가 독특한 민족성을 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상황화할 수 있도록 민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예배 스타일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은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자신과 다른 특정 집단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느낌과 편견 그리고 평가적

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 교회에 나타난 이주민들이 너무 반갑고 고맙기만 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다르게 한국교회는 기독교인이 되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혹은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빨리빨리 변화되길 기대한다.

차별감

참여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신학교와 한국교회에서도 유사하게 경험한다고 언급한다. 대표적인 예로 일반 사회든, 신학교든, 한국교회든 대부분의 한국인은 유교적 배경의 예(禮)를 중시하는 것을 강조하며 외국인에게 예(禮)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외국인에 대하여 예(禮)를 갖추지 않는다는 모순점을 지적한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외국인 사역자들을 꺾어준다

보니, 각 나라의 민족성을 살리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자기 역할의 한계와 사역의 자율성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비숍 에프라임 텐데로

WEA 글로벌 앰버서더
갈릴리무브먼트 대표

갈릴리무브먼트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성하도록 세계 100개국에 10만 개의 교회를 동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갈릴리무브먼트는 주님의 세 가지 큰 관심사, 즉 하나님과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 12:29~31), 제자를 만드는 것(마 28:19),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요 17:23)에 의해 움직입니다.

현재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약 25억 명만이 기독교인이며, 영혼구원과 교

회개적이 세계 곳곳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더 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갈릴리무브먼트는 첫째로, △기존 요구를 파악하고 △입증된 관행을 강조하며 △교회와 사역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돕고 △공식 및 비공식 제자양육 훈련 기관을 소개합니다. 둘째로, 전 세계의 최소 10만 개 교회의 참여를 위한 동원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륙·국가·지역 차원에서 협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기독교 교육기관·선교단체·교단·지역교회 및 교인들의 참여를 동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이 성경 번역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단체가 지금도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 한

편, "이 일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협업에 도전했을 때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갈릴리무브먼트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2000주년이 펼쳐짐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종적인 부르심'이라는 각오로 진행됩니다. 갈릴리무브먼트의 과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에 따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사역과 자원의 효과적인 조정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

습니다. 갈릴리무브먼트는 지구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모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향에서는 종종 비행기에 탑승하는 '최종 호출'을 듣습니다. 물론 그 발표는 더 이상 공향을 떠나는 비행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비행기에 타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무브먼트의 '최종 호출'은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제자 양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기 위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 성경적 본질에 대한 성찰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민학습 공동체 대표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의 3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I'을 요약하였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은 성경적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 연구>라는 글을 통해 디아스포라 신학의 핵심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흠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인정,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모형을 통한 디아스포라 선교 구현,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이민자라는 정체성 회복, 넷째로 진정한 교회는 예언자 전통에서 있는 디아스포라 신앙공동체라는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다.

위의 네 가지 요소는 전혀 새로운 신학이 아니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이슈이며, 다만 우리의 문제는 본질에 대한 삶의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때 그 특성상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윤리적·종교적 문제들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인류구원을 주도하심을 믿는 선교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조명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애즈베리신학교의 윤리학자인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은 이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성경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방인(alien 또는 exiles)이라는 것과 이방인으로서 다른 이방인을 친절하게 환대하는 삶의 양식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시절을 돌아보면, 이방인의 지위와 친절은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정체성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런 독특한 초대 공동체의 윤리관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확장되어 나갔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깥 세계로부터 적대감을 사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의 성경적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좌표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민/디아스포라에 대한 신학적 성찰

2008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민과 변화하는 교회 환경'에 대한 컨설팅이 열렸으며 이민이 유럽교회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특별히 본질적인 신학 문제를 반추하는 일이 최우선으로 부각되었고,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

와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각 교회에 다음과 같은 실천 내용을 권면하기로 결의하였다.

- 성경적 관점에서 '이방인'의 의미를 더 깊이 숙고하자
- 친절(hospitality)과 포용(inclusiveness)의 신학을 강조하고, 이것이 가져오게 될 교회론적 결과를 직시하자
- 이민과 디아스포라에 일어난 단절과 상실의 결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안을 찾고, 개별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실제적이고 영적인 치유 과정에 참여하자
- 언어·종족·문화의 장벽을 넘어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연합을 추구하며 이런 연합을 위한 신학적 고민을 하자. 그리고 전통과 문화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 됨(Oneness)'을 언제 어디서나 주저 없이 선언하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이루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세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신학적·사회학적 반추를 해야 한다.

- 규범적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지(전통적으로, 혹은 이민자 관점에서)

- 다민족 상생(multiethnic/lingual integration)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어의 역할과 조정에 대해 숙고

- 다중 문화 속에서 소수민족의 위상을 보존하도록 한시적인 언어 분리 정책을 고려

- 다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

- 한 종족의 집단 정체성과 개별적인 정체성 가운데 일어나는 긴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사회 전체에 동화되기 위한 개별적인 전략 개발

사회학적 성찰

지역교회나 디아스포라 교회는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창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십이나 구성원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민자를 수용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이슈를 소개한다.

- 이민자를 교회 공동체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로 이해
- '동화(integration)'를 서로 연합하도록 만드는 공동의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모
- 이민자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배려
- 이민자의 동화를 위해 교회 리더십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촉구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샬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샬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영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한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이주민 야곱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ño

글

성경에 등장하는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주자로 평생을 살았다. 그들의 '패턴화된 이주'는 히브리 공동체의 출현과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부족과 씨족을 낳았고, 이들은 신흥 국가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과 그의 일족은 여러 곳에서 전전하며 살았다. 야곱은 11곳의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곳에서 머물렀다. 창세기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25:28~34; 27:1~46) △벤엘(28:11~22) △하란(29:1~30:43) △미스바(31:1~55) △마하나임(32:1~5) △브니엘(32:1~32) △숙곳(33:17) △세겜(34:1~30) △벤엘(35:1~15) △에브랏(35:16~20) △헤브론(35:27) △애굽(46:6)이라고 설명한다. 이 장소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간 삶의 발자취 역할을 한다. 야곱의 이야기에는 "유랑하는 아람인"(신 26:5)으로서의 삶과 관련된 통찰이 많다.

오늘날 우리는 야곱이 한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야곱의 길고 고된 여행은 그가 그의 형인 에서를 속이면서 시작되었다. 브엘세바의 집에서 일어난 이러한 기만행위는 쌍둥이 형제 사

이에 분쟁을 일으켰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고, 벤엘에서 꿈을 꾸었다(창 28:12~14).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동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헌신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을 속였지만, 성인이 된 후 야곱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특징처럼 나타난다. 야곱은 벤엘에서 인생관이 바뀌었다. 브니엘에 있는 동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은 두려웠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씨름하듯 간절히 구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두 번째 만남 이후로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자 더 많은 디아스포라적 상황의 전주곡이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창 35:21)

세 번째는 온갖 장애물 속에서 보인 야곱의 끈기와 회복이다. 야곱은 하란에서 14년을 살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섬겼다. 그는 레아를 위해 7년을 투자하고 라헬을 위해 7년을 투자하였다. 첫 번째 결혼 시도는 라반이 라헬을 만난인인 레아로 바꿔치기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이 되려 속은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은 젊은이의 삶에 인내심을 낳았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내심을 기리며 12명의 아들로 축복하셨다. 그의 노고는 결실을 보아 번성하게 되었고, 라반과 처남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다. 이 일로 야곱은 미스바로 도망쳤다.

네 번째는 야곱의 문화적 적응력이

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했다. 그는 체류 기간이 짧은 길든, 각기 다른 문화적·사회경제적·정치적·종교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가나안에서 그의 씨족을 위한 거주지를 지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피를 흘렸을 때는, 그의 가족을 남쪽으로 옮겼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야곱은 때때로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몇몇 장소로 돌아가 그의 유산과 강한 유대를 유지했다.

다섯 번째는 야곱의 초국가적 정체성이다. 가족의 유산과 사회적 유대감은 야곱의 이주 생활을 상징했다. 그는 인생의 주요 전환점을 경험했던 두 개의 중요한 장소인 벤엘(35:1~15)과 브엘세바(46:1~5)를 다시 방문했다. 아람인 어머니(밧단 아람 출신의 리브가)를 둔 것이 야곱이 이중 가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의 이주는 그의 유산을 버리지 않고 광대한 지리적 지역을 포괄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의 용어로 '초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했다.

야곱의 씨족은 조상의 고향에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적 규범을 준수하고, 종교적 관습

을 따르고, '외국어'를 구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가 꿈꿨던 조국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야곱은 조상의 집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함께 이사를 장사 지냈고, 그가 죽었을 때도 헤브론(50:1~13)에 묻혔다. 그에 따라 그의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강한 유대를 확인한 것이다.

야곱이 죽기 전과 후에 고국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21세기의 역이주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 야곱의 신앙 여행은 오늘날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랑하는 아람인"으로서 그의 삶에 변화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야곱의 순종이었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림=묘초초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 재 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량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어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권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골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3면 설교단상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Kunlardan birida Iso tug'ma ko'r bo'lgan odamni sog'aytiradi. Ko'r odamning eng katta ehtiyoji yorug'likni ko'rish edi. Agar uning ko'rish nervining yorug'likni sezish qobiliyati qayta tiklansa, dunyoni ko'ra olsa, hammasi obod bo'ladi. Biroq Iso ko'r odamni shifolashdan oldin, u bizga nur O'zi ekanligini aytdi. "Men olamda bor ekanman, olamning nuridirman" (Yuhanno 9:5).

Albatta, Iso ruhiy ma'noda dunyoning nuri ekanligini e'lon qildi, lekin bu yorug'lik oxir-oqibatda ko'rlarning ko'zlarini tiklash uchun jismoniy shifo qobiliyatiga olib keldi. Bu shifo topmoqchi bo'lganlar bilishi kerak bo'lgan haqiqatdir. Kasallik turli

yo'llar bilan davolanadi, ammo davolash manbai Rabbiiy nurining to'lqini uzunligidan kelib chiqadi.

Ushbu shifo jarayonida ko'r odam Rabbiiy bilan birga harakat qildi. U loy qilish uchun yerga tupurganida va uni ko'ziga surganida hamkorlik qilgan (Yuhanno 9:6) va borib Siloam hovuzida yuvinishni unga buyurganida, u itoat qilgan (Yuhanno 9:7). Baxtli yakun. "Кўр о дам бориб ювинди ва кўра олад иган бўлиб қайтди" (7-oyat).

Rabbiiy mening kasalligimni qanday davolashni biladi. Shu tarzda u optimal jarayonga olib keladi. Natijada ko'r odam nafaqat ko'zlarini ochdi, balki Isoning kimligini bilish uchun ajoyib ruhiy tajribaga ega bo'ldi. U ikki barobar

ko'proq foydaga ega.

20 yoshimda hech qanday kasalliksiz aqliy va jismoniy zaiflikdan aziyat chekdim. Shu bois men o'tlardan tayyorlangan dori-darmonlarni qabul qildim, sog'lom ovqatlanish tartibiga rioya qildim, boshpana uchun ibodat qildim, ibodat markaziga bordim va sog'lomlashtirish uchrashuvlariga tashrif buyurdim. Kasallik kutilganidan uzoqroq davom etdi, lekin Rabbiiy yo'lda mening ruhimga tegindi. Nafaqat tananing kasalligini shifoladi, balki nur bo'lgan Rabbiiy bilish uchun qalbning ko'zlarini ochdi va uni nurni qabul qilib ishlaydigan pastor sifatida tarbiyaladi.

Keling, kasallikdan o'tish yo'lini

topaylik. Keling, olib boradigan eng yaxshi yo'lga o'taylik. Loy sursangiz, suriladi, Siloam hovuziga borib yuvin deyilsa, yuvinaylik. Dorini kamaytiring desa, kamaytiring, ko'proq mashq qiling, desa, ko'proq qiling. Agar siz tanangiz uchun foydali taomlarni iste'mol qilishni tanlasangiz, keling, shunday ovqatlanaylik.

Keling, bu guvohlikni shifo orqali beraylik. "Iso degan kishi loy qilib, ko'zlarimga surtdi-yu, "Borib, Siloam hovuzida yuvingin", dedi. Men borib yuvindim va ko'radigan bo'lib qoldim" (Yuhanno 9:11) "Men Iso aytganini qildim. Keyin kasallik yo'qoldi!" Bu shifo guvohligi joriy 2023-yilda mukammal bo'lishini tilayman. **번역가자 정요섭**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3면 설교단상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耶稣在地上经常做的事工之一是医治疾病。如同现今医院里有着众多等待死亡的患者一样，当时也有着数不清的病人。如何摆脱疾病，健康生活成为人们的首要关注点。

有一天，耶稣医治了一个生来就是瞎子的盲人，对于盲人来说，最需要的是看见光，如果他的视神经能感知光，他就能看见这个世界。但是耶稣在医治盲人之前告诉他，自己就是那光。“我在世上的时候，是世上的光” (约9:5)

当然，耶稣是从灵性的意义上宣

告自己是世上的光，但最终这光带着医治肉身的大能，治好了盲人的眼睛。焦灼地期盼自己身上的疾病被医治的人一定要知道，疾病有千万种，治疗方法也有千万种，但最终医治的根本在于耶稣的光。

盲人在被医治的过程中一直与主一起行动，耶稣吐唾沫在地上，用唾沫和泥涂在他的眼睛上时，他配合耶稣 (约9:6)，耶稣让他到西罗亚池子里去洗时，他也顺从了耶稣 (约9:7)。当然结局是 happy ending，"他去一洗，回头就看见了。" (7节) 主知道如何用最佳的方法医治我们

身上的疾病。盲人不仅是眼睛得到医治，更重要的是他在属灵上经历了耶稣，认识了耶稣，他的灵与肉体均得到益处。

我在20多岁时患上了身心衰弱症，为了医治这个无名疾病，我吃中药，吃保健品、上山祷告，去祷告院祷告，去参加医治大会。疾病折磨了我很长时间，但在此漫长的过程中，主触摸了我的灵魂。他不仅医治了我肉身的疾病，还打开了我属灵的眼睛，我认识了这光，认识了耶稣，成为了一名牧师。

借着疾病，找到被神引导的那条

路吧。顺从神的美意吧，让抹泥就抹，让去西罗亚池子洗就洗，让少吃药就少吃，让多运动就多运动，让吃对身体好的食物，就顺从着吃吧。

当疾病被医治后，就去这样做见证吧：“有一个人，名叫耶稣，他和泥抹我的眼睛，对我说‘你往西罗亚池子去洗’，我去一洗，就看见了。” (约9:11) “照着耶稣说的去做，身上的疾病就消失了！” 祝愿身体有疾病的人，今年都能做这美好的医治见证。

번역가자 묘초초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3면 설교단상을 네팔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येशू यस पृथ्वीमाँहु अक्सर गर्नुहुने कुराहरू मध्ये एउटा रोगहरू नको पार्नु थियो। त्यतिबेला धेरै बरिामी थिए, अहिले पनि अस्पतालमा यति धेरै बरिामी छन् किमानसिहरू पर्खँदै मर्छन्। म कसरी रोगबाट मुक्त हुन सक्छु र स्वस्थ जीवन बिताउन सक्छु? जनताको पहिलो चासोको विषय बनेको छ।

एक दिन, येशूले बाल्यकालदेखि नै अन्धो भएको मानसिलाई नको पार्नुहुन्छ। अन्धाहरूको लागि सबैभन्दा आवश्यक कुरा उज्यालो हेर्नु थियो। यदि उसको अप्टिकि स्नायुको प्रकाश पत्ता लगाउने क्षमतालाई पुनर्जीवित गरियो र उसले संसार देख्न सक्छ भने, सबै कुरा समृद्ध हुन्छ। यद्यपि, येशूले अन्धा मानसिलाई नको पार्नु अघि, उहाँले हामीलाई बताउनुभयो कि ज्योति

आफै थियो। "जब सम्म म संसारमा छु, म संसारको ज्योति हुँ (यूहन्ना 9:5)। नसिसन्देह, येशूले घोषणा गर्नुभयो कि उहाँ आध्यात्मिक अर्थमा संसारको ज्योति हुनुहुन्छ, तर यसले अन्ततः अन्धा आँखाहरू पुनर्स्थापित गर्न शारीरिक उपचारको क्षमताको नेतृत्व गर्‍यो। यो तथ्य हो कि ज्योति नको हुनु उत्सुक छन् तनीहरूले जान्नुपर्छ। रोग विभिन्न तरिकाले नको हुन्छ, तर उपचारको स्रोत प्रभुको ज्योतिको तरंगदैर्घ्यबाट आउँछ।

उपचारको यस क्रममा, अन्धाहरू प्रभुसँग सरो। जब उसले भुइँमा थुक्‍यो र माटोलाई जित्‍यो र आफ्नो आँखामा लगायो, उसले सहयोग गर्‍यो (यूहन्ना 9: 6) र जब ऊ धुन सिलोम पोखरीमा गयो (यूहन्ना 9: 7)। नतजि सुखद अन्त्य भयो। "त्यसले गएर पखाल्‍यो, र देख्‍ने भएर

फर्क्यो।" (पद 7) मेरो रोग कसरी नको पार्ने भनेर परमप्रभु जान्नुहुन्छ। त्यसैले यो इष्टतम प्रक्रियामा जान्छ। नतजिाको रूपमा, अन्धो मानसिले आफ्नो आँखा मात्र खोलेन, तर येशू को हुनुहुन्छ भनेर जान्नुको एक अद्भुत आध्यात्मिक अनुभव थियो। उसलाई दोहोरो फाइदा छ।

20 वर्षको उमेरमा, म अज्ञात मानसिक र शारीरिक कमजोरीबाट पीडित थिएँ। त्यसोभए, मैले जडिबुटी औषधि खाएँ, स्वास्थ्य खाना खाएँ, प्रार्थना गरेँ, प्रार्थना केन्द्रहरूमा गएँ, र उपचार सभाहरूमा गएँ। रोग सोचेभन्दा लामो समयसम्म रह्यो, तर प्रभुले बाटोमा मेरो आत्मालाई छुनुभयो। शरीरको रोग मात्र नभई ज्योति हुनुहुन्छ भन्ने प्रभुलाई चिन्नु आत्माको आँखा खोलेर ज्योति ग्रहण गरेर काम गर्ने पासटरको रूपमा हुर्काएँ।

रोगको माध्यमबाट नेतृत्व गर्ने उपाय खोजौँ। नेतृत्व गर्ने उत्तम बाटोमा अघि बढौँ। माटो लगायो भने लगाइन्छ, र सिलोमको पोखरीमा गएर नुहाउन भनियो भने नुहाउँ। यदि औषधी घटाउछ भने कम गर, धेरै व्यायाम भन्छ भने धेरै गरा। यदतिपाइँ आफ्नो शरीरको लागि राम्रो खानेकुराहरू खाने छनौत गर्नुहुन्छ भने, त्यसरी खाऔँ र उपचार मार्फत यो गवाही दिनुहोस्। "येशू भनिने मानसिले माटो बनायो र मेरो आँखामा दाग्यो र मलाई भन्यो, 'सिलोआमा जा र धो।' त्यसैले मैले गएर धोए, र मैले देखें" (यूहन्ना 9:11)। "येशूले मलाई जे गर्न भननुभयो, मैले त्यही गरेँ। त्यसपछि रोग गायब भयो!" मलाई आशा छ कि नको हुने यो गवाही यस वर्ष 2023 मा पूरण हुनेछ।

번역가자 피터 김 선교사